

연구중심대학 체질 강화 ‘본격화’

전북대, 작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1억7219만원으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많아
양오봉 총장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대형 국책사업 유치·연구 생태계 개선 등 성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표된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전북대는 2024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1억7,219만원으로 거점국립대 1위를 기록했다.



전북대학교 전경

교수 연구 분야의 이같은 성과는 최근 발표된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두드러졌다. 이 평가에서도 교수당 외부연구비 거점국립대 1위, 교수당 자체연구비 전국 3위를 기록해 전국적 연구경쟁력을 확실히 입증했다. 연구 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 취임 이후 최근 3년 간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연구자 지원 고도화, 지역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혁신 연구 등 연구 생태계를 개선해 왔다. 이러한 장기적 구조 혁신이 이

번 평가에서 구체적 성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런 성과는 최근 대학이 추진해 온 글로벌대학30 사업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BK21 대학원혁신, RISE 지역혁신 연계 연구 등 전방위적 연구 인프라 확충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대는 대형 국책사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실험장비와 공동연구 공간,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

지원 등 연구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며 강화해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전북대는 10년 내 최소 5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재료과학·농·임학·화학·공학·기계·항공·제조공학·환경과학 등 선도형 5개 분야와 물리·천문학·생명과학·전기·전자공학·화학·의학 등 도약형 5개 분야 등 총 10개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미 화학공학과 환경공학 고분자화학·물리화학 분야는 세계 100위권에 랭크돼 있고 올해 발표된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지난해 11개 보다 많은 15개 학문 분야가 순위권에 진입했다. 수의학·석유공학 부문은 100위 이내에 진입했다.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이후 2025년까지 100위권 학문 분야 2개, 200위권 학문 분야 4개 진입을 목

표로 설정했는데 이를 이미 달성하며 ‘글로벌 Top100 대학’ 진입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4단계 BK21 및 대학원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융합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 등도 연구력 지표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의 RISE 사업을 통해 농생명·바이오·방위산업, 2차 전지 등 지역전략 산업 대학 연구역량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K-STAR 비자 트랙 참여대학 선정으로 우수 외국인 연구자가 장기 체류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연구 인력의 국제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연구는 대학의 미래 경쟁력이며, 지역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글로벌대학30, 반도체공동연구소, BK21, RISE를 기반으로 연구·교육·산학협력 체제를 더욱 고도화하고, 글로벌 TOP100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9일 전주한일고를 방문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이하진 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 해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수능 전 과목 만점 받은
한일고 이하진 학생 격려

9일 전주한일고를 방문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이하진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유 권한대행은 이 군에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수능 전 과목 만점을 달성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훌륭해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학생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

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위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장 선생님과 담임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력 신장을 위해 헌신해주셨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이하진 군은 재학생으로 전 과목 만점을 달성하며 전북에서는 2010년 이후 6번째, 재학생 기준으로는 10년 만의 기록을 세웠다.

학교 입학 당시 최상위권이 아니었던 이 군은 ‘학력향상 도전학교’와 ‘수능 한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등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성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훈 기자

AI 선도대학으로 도약한다… 우석대, ‘AI혁신추진위’ 출범

교육·연구·행정 전반
AI 혁신체계 구축 돌입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9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원주 우석 전당대 W-SKY 23에서 ‘AI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의 AI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출범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의 후원으로 마련돼 지역과 함께하는 AI 혁신 구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노준 우석대 총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상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기획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 김윤태 대외협력부총장 겸 AI혁신추진위원장 등 주요 내·외빈과 대학 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윤태 대외협력부총장 겸 AI혁신추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 대는 대학의 모든 기능에 AI를 접목해 미래 대학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석대학교가 9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원주 우석 전당대 W-SKY 23에서 ‘AI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연 가운데,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노준 총장은 환영사에서 “AI 혁신은 대학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라며 “우리 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AI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이규택 전북테크

노파크 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우석대의 AI 혁신 비전과 지역 상생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며, 대학의 AI 혁신 의지를 지지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윤태 대외협력부총장 겸 AI혁신추진위원장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AI 교양·전공 교육 개편 △AI 기반 행정 시스템 고도화 등 그간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대학·지역·산업을 잇는 AI 혁

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석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교육·연구·행정 등 전 영역에 AI 기반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AI 발전 모델을 마련해 AI 선도대학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주=임재복 기자

유전자가위 기반 기능성 식물 신제품 개발 착수

전북대 이정환 교수팀, ‘팁스’ 선정… 그린바이오 혁신 가속

전북대학교 이정환 교수(자연대 생명과학과)가 창업한 (주)휴스바이오사이언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팁스(TIPS)’ 일반트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팁스(TIPS)는 세계 시장 선도를 목표로 기술 경쟁력이 높은 창업팀을 민간 투자자 추천을 통해 발굴·육성하는 대표적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휴스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 11월 팁스 운영사인 (유)스케이업파트너스로부터 약 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운영사 추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최종 평가를 거쳐 이번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을 통해 이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수면 관련 유전자 활성을 조절하여 수면 개선 효능을 극대화한 기능성 상수 신제품 개발에 본

격 착수한다. 이정환 대표는 “식물 자원을 기반으로 기능성 및 원료약품 소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사업화가 이번 팁스 선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능성 그린바이오 소재의 안정적 국내 공급망 구축은 물론 지역 농생명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사의 핵심 비전인 ‘의약품 원료 소재 개발을 통한 기능성 및 원료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이번 지원을 통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고위험 임산부 삶의 질 향상 해법 제시

전북대간호대학 정유정 박사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정유정 박사(지도교수 노주희)가 최근 열린 ‘2025년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정 박사는 ‘고위험 임부의 임신 스트레스 임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대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azarus & Folkman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기반으로 임신 스트레스와 임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대처를 확인하고, 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연구 결과, 임신 스트레스와 임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고, 대처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이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 결과는 고위험 임부에게 임신 스트레스 감소 및 임신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유정 박사는 “이번 연구는 고위험 임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주희 지도교수는 “고위험 임부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연구 결과가 향후 건강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양식 확산을 목표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에게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크리스마스철 특별성금 전달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5층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부로부터 크리스마스철을 전달받고,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12년째 이어가는 사랑나눔 ‘창작 태권도 공연’

전주대 태권도학과, 14일 ‘피날레’ JJ아트홀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태권도학과는 오는 14일 창작 태권도 공연 ‘피날레(FINALE, 더 라스트 쇼)’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공연은 전통 태권도의 역동적인 기술과 예술적 연출을 결합해 지역민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공연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단체에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인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MZ세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함께, 협력’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태권도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무대예술의 감성적 연출을 결합해, 서로 다른 존재

들이 하나의 동작과 에너지로 어우러지는 장면을 통해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표현한다.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이번 공연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본질에 담긴 인내·존중·배려의 정신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관객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미 지역 태권도장 단체 관람석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반 관객은 전 주티켓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창작 공연은 전주대학교 RISE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장수 역사 알기’ 프로그램 운영

장수의 역사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즐겁게 배우는 현상이 마련됐다.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9일, 장수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수역사알기-장수역사탐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정체성 이해와 역사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한 체험형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실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 탐구와 참여 활동을 강화한 형식으로 준비됐다. 특히 장수지역과 관련된 역사 단서를 스스로 찾아보고, 핵심 어휘를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퀴즈 제작 및 게임 활

동까지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몰입도를 높였다.

한편 장수교육지원청은 지역사 기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학생들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